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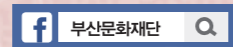
가장 빠른 <부산문화재단> 소식! 실시간 공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카오톡 친구찾기에
[부산문화재단]을 검색 하신 후
친구추가를 해주세요.



부산문화재단
최신소식 공유하기



예술창작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부산문화재단



문화행사 사진은
인스타그램으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 051 744 7707 F. 051 744 7708 ~ 9
SNS관련문의 기획홍보팀 051-745-7223~4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FALL 2016 가을호

朝鮮
二
世
出
版



부산문화재단
BUSAN CULTURAL FOUNDATION



조선통신사

JOSEON TONGSINSA JOURNAL · FALL 2016 가을호

CONTENTS

- 권두칼럼 04** 조선통신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장제국 | 동서대학교 총장
- 성신교린 06** 조선통신사의 첫 상록지 쓰시마를 찾아서
모리모토 야스히로 | 주부산일본국총영사
- 기획특집 09**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있는
“문화교류의 기록”의 모습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하여
구지현 |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ZOOM IN 조선통신사 12**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자료에 관하여
마치다 카즈히토 |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장
- 新조선통신사 15** 시즈오카시와 조선통신사
이케다 히로시 | 공익재단법인 시즈오카시 문화진흥재단
- 문화프리즘 18** 성신교린의 ‘오래된 미래’, 한일 청년 문화교류
이철호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장
- 조선통신사 24時 20** 2016 조선통신사 한일네트워크사업 - 쓰시마와 시모노세키
조선통신사 뉴스
부산문화재단 국제협력팀
- 조선통신사 갤러리 23** 임란 후 처음 일본에 파견된 화가, 이흥규
이정은 |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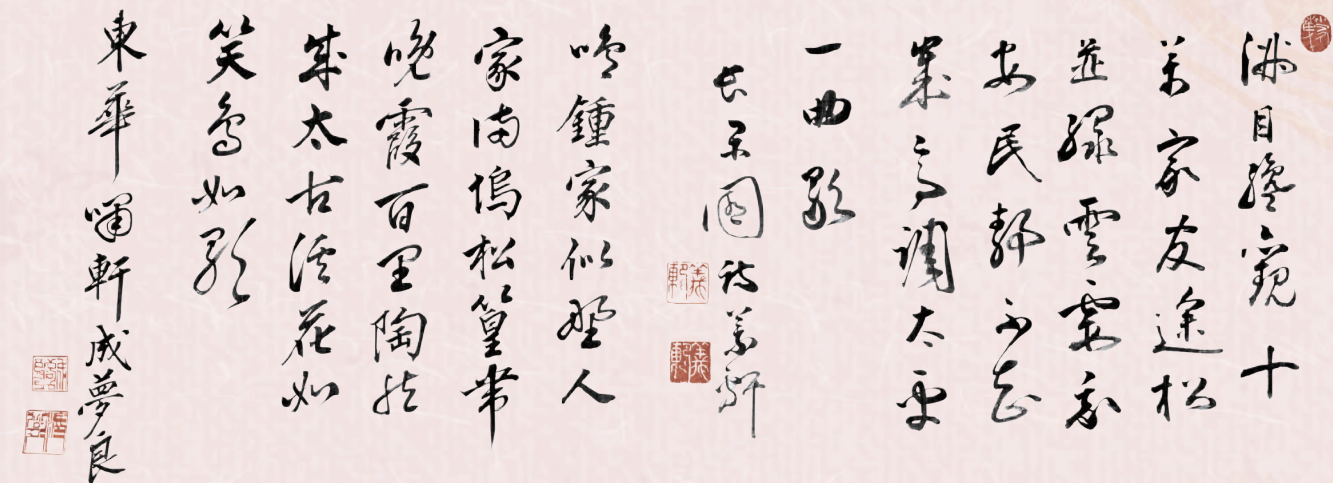


〈표지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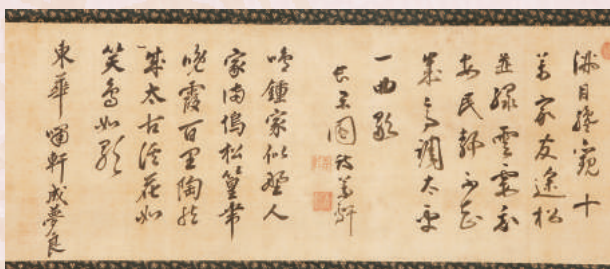
사 진 | 석란도(石蘭圖)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 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1763년 통신사행의 화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김유성(金有聲, 1725~?)의 작품이다. 김유성은 정선파의 진경산수화풍을 일본에 전하는데 이바지한 화가로, 이 작품 역시 당시 한일 간 회화교섭의 실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의가 있다.

사 행 년 | 1763~64년
제 작 자 | 김유성(金有聲)
제작연대 | 1764년
소 장 처 | 부산박물관
사진제공 | 부산박물관



이 행서는 1719년 통신사 서기(書記) 성몽량(成夢良, 1673~1735)과 당시 조선 통신사 일행을 맞이한 일본인 가운데 호를 의헌(義軒)이라 하는 문사(文士)가 함께 쓴 것으로, 에도시대의 태평성세를 주제로 칠언시(七言詩) 두 수가 쓰여 있다.



사 진 | 의헌·성몽량필행서(義軒·成夢良筆行書)
설 명 |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국 측 등재 신청목록 중 문화교류의 기록물

사 행 년 | 1719~20년
제 작 자 | 義軒, 成夢良
제작연대 | 18세기
소 장 처 | 부산박물관
사진제공 | 부산박물관

발 행 일 2016. 10. 24. **발행인** 김병기
발 행 처 (재)부산문화재단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Tel 051. 744. 7707
편집위원 최화수(편집주간), 한태문, 김동철, 박화진, 이철호, 백태현
편집기획 국제협력팀 Tel 051. 744. 7707 www.tongsinsa.com
디자인·제작 호민디앤피 Tel 051. 807. 5100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자료를 재사용하려면 (재)부산문화재단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조선통신사 저널은 (재)부산문화재단 및 조선통신사문화사업 홈페이지에서 웹진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산광역시 2016년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선통신사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朝鮮通信使と未来志向の韓日関係



장제국 + 동서대학교 총장
張濟國 + 東西大学校 總長

今年の春、韓国と日本は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記録(記憶)遺産登録に向けて共同で申請書を提出した。関連委員会の実務担当者や研究者らの尽力に感謝の意を表したい。韓日共同申請が認められれば、韓日の関係改善における追い風になることは確かだ。今日の韓日両国に求められているのは、互いの異なる点を浮き彫りにしながら不信感を増幅させるのではなく、両国が共有する質の高い共通点を前面に掲げることで協力と友好を増進させていくことである。「誠信交隣」という朝鮮通信使の精神が韓日両国民の心に芽生えるのであれば、我々はこの先、新たな50年をより未来志向の韓日関係へと発展させていくことができるはずだ。



지난 봄, 한국과 일본은 조선통신사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공동등재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2012년 공동등재를 위한 첫 걸음을 뗀 지 4년 만이었다. 그동안 한국 측의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측의 '조선통신사 연지연락협의회'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와 실행위원회, 그리고 학술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협약과 학술회의를 거듭하며 공동등재를 위해 힘을 쏟아왔다.

이제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내년 6월은 되어야 등재여부가 결정 되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 111건 333점이 그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필히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사실, 공동등재 추진 자체만으로도 한일 양국의 화합과 협력을 위한 작은 씨앗을 뿌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이루지 못한 사업을 뜻있는 한일 민간에서 주축이 되고 의기투합하여 공동등재 신청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실이 있기까지 관련 위원회 실무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동안 뜻있는 많은 분들이 조선통신사에 대한 연구와 문화사업을

꾸준하게 이어온 덕분에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그 많은 자료들이 집대성될 수 있었다.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공동등재 신청 움직임은 한일관계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 졌다.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이해와 견해차이라는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윈윈(Win-Win)하는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에는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외교적 마찰과 갈등이 고조되었었고, 경제 및 문화부문까지 그 영향이 확산되어 왔다. 다행히, 지난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일 정상회의가 3년 반 만에 재개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타결되는 등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한일 양국은 서로의 다른 점을 강조해 불신을 증폭시켜 나가기보다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수준 높은 공통점을 부각하여 협력과 우호를 증진해 나가야 할 때이다. 한일관계 개선이 절실한 이 때에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담겨 있는 '긍정의 기억'인 조선통신사 한일 공동등재 사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신청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한일 공동등재가 확정된다면 분명 한일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한층 북돋워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실로 한일 양국이 오래 전부터 정치적 이해와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노력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며, 새로운 한일관계구축을 위한 모범적인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통신사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삼국의 평화공존을 위한 국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의의가 매우 크다. 1607년 조선통신사가 처음 일본에 파견된 지 이미 400주년이 넘어선 오늘날에도 조선통신사의 '성신교린' 정신이 꾸준히 조명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지금 한일관계에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정성과 신의라고 생각한다. 성신 교린의 조선통신사 정신이 한일 양국 국민들의 마음에 싹을 틔우게 된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새로운 한일관계 50년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등재신청은 아시아 국가가 공동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으며, 한일 양국의 수도가 아닌 지방발 정보발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부산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끊임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사를 기도 하는 마음으로 바라본다.

조선통신사의 첫 상륙지 쓰시마를 찾아서

朝鮮通信使の最初の上陸地、対馬を訪ねて



모리모토 야스히로 + 주부산일본국총영사
森本 康敬 + 在釜山日本国総領事

8月に厳原港まつりに参加するために対馬を訪問したが、多くの新鮮な驚きがあり、実りある旅でもあった。戦争で悪化した両国関係を修復するための困難な外交交渉を、時に国書を偽造までして何とかやり遂げようとした第19代対馬藩主宗義智について深く知ることができたことは大きな収穫だった。江戸時代に自らが復活させ今よみがえった朝鮮通信使の行列を、義智がどのような気持ちで眺めているだろうかと想像しながら、楽しい時間を過ごした。

6월 9일에 서울에서 부산으로 부임하여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조선통신사역사관이나 부산박물관 등을 방문하여 조선통신사에 관한 전시와 자료를 많이 봤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일본에서의 첫 상륙지였던 쓰시마[對馬]를 방문했던 일은 한일 관계에 오랜 시간 종사해온 저에게는 신선한 놀라움을 주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결실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쓰시마시의 초청을 받아 이즈하라[厳原]항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8월 6일 부산문화재단 분들과 함께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파도도 조용하고 온화한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쾌적한 고속선 여행으로, 불과 2시간이 채 못되어 이즈하라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심사를 마치자 쓰시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이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하고 환영만찬이 있기까지 다소 시간이 있었기에 같은 숙소에 묵게 된 쓰시마시국제자문대사를 맡고 계시는 강남주 선생님(전 부경대 총장)께서 도내의 주요명소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강남주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쓰시마를 90회 이상 방문하셨고, 쓰시마와 조선통신사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박식하십니다. 이즈하라의 거리를 강남주 선생님과 걸으

면서 마주치는 많은 분들이 강남주 선생님께 친숙하게 인사하시는 모습만 보아도 선생님께서 쓰시마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쓰시마를 가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평지가 적고 산이 바다까지 뻗어있으며 그 산에는 나무들이 울창합니다. 조금만 숲 속에 들어서면 섬이 아닌 산악지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형 때문에 예부터 주식인 쌀의 수확량이 적어, 이 섬의 통치자는 어떻게 해서 식량을 확보하는가가 중요한 임무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섬의 50km 북쪽에는 비옥한 낙동강 삼각주가 펼쳐져 귀중한 쌀이 풍부하게 수확되었기 때문에 쓰시마의 번주(藩主)를 대대로 역임한 소[宗] 씨 가문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어떻게 조선왕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교역으로 얻어진 이익으로 섬 백성들의 식량을 확보하는가였습니다.

따라서 쓰시마번으로서는 일본과 조선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번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 긴 전국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일본열도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에 의해 통일되자 큰 비극이 찾아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과 명나라에 군사를 보내기 위해 쓰시마번의 선진에 서기를 명합니다. 소 씨 가문이 당시 권력자의 명을 거역하는 일은 바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조선을 공격하면 지금까지 이룬 조선과의 우호관계가 무너져 식량조달도 어려워집니다. 이 엄청난 곤경 속에서 고민한 사람이 제19대 번주 소 요시토시[宗義智]로, 결국 그는 장인인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와 함께 조선에 진격합니다. 사카이[堺]의 상인 출신인 유키나카는 무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 요시토시와 같이 진격에는 소극적이었다고 전해지나, 당시의 권력자 히데요시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간신히 전란은 종결되었으나 6년에 이르는 전쟁은 막대한 피해와 더불어 수많은 조선인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키가하라[関ヶ原]의 전투를 거쳐 권력은 도요토미 가문에서 도쿠가와[徳川] 가문으로 옮겨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에 대적한 유키나카는 처형되고 함께 적군에 섰던 요시토시는 유키나카의 딸인 자신의 아내와 헤어지게 되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목숨은 건졌습니다. 이것은 이에야스가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위한 교섭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쓰시마번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쓰시마번에 있어 조선과의 관계 개선은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요시토시는 열심히 어려운 교섭에 임합니다. 그러나 외교 교섭이라는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나라와 나라의 이익이 부딪히는 가운데 어느 한쪽이 100% 만족하는 경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함으로써 어렵게 타결이 성립되는데, 그러기 위해 교섭자는 상대국뿐만 아니라 자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도 맡아야 합니다. 조선 측은 강화를 요구하는 쪽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의 국서 즉, 일본측의 정식 사죄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소 요시토시는 이에야스를 설득해서 국서를 쓰게 하는 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궁여지책으로 국서를 위조하기에 이릅니다. 이에야스의 국서를 받아 조선국왕으로부터 답장이 도착하지만 이 내용을 그대로 이에야스가 읽게 되면 위조가 발각되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조선국왕의 국서 또한 위조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요시토시는 발각되면 본인의 목숨은 물론 소 씨 가문의 가계가 단절될 정도의 엄청난 모험을 단행했지만, 그만큼 쓰시마번에게 조선과의 국교 회복이 절실했을 것입니다. 요시토시의 사망 후, 그의 아들 요시나리(義成) 대에 와서 국서의 위조가 막부에 발각되지만, 3대 장군 이에미쓰(家光)는 요시나리를 벌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합니다. 막부에 있어서도 조선과의 우호관계 유지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나가사키현립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에는 위조된 국서에 관한 전시도 있어, 이를 보고 있으면 요시토시의 열의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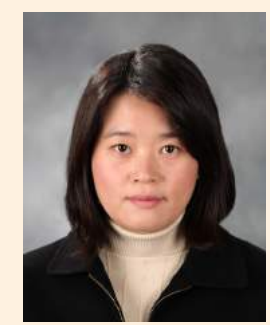
목숨을 건 교섭 끝에 겨우 일본과 조선의 강화가 성립되어, 1607년 조선통신사의 일본과견이 재개됩니다. 일본과 조선 간의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져 쓰시마번은 소중한 식량미의 확보뿐만 아니라, 당시 아주 귀중한 조선의 인삼이나 비단 등의 교역을 독점하게 되어 막대한 이익을 얻습니다. 쓰시마역사민속자료관에서 조금만 산 쪽으로 들어가면 소 씨 가문의 조상 위패를 모신 사찰 반소인(万松院)이 있습니다. 이곳은 요시나리가 아버지 요시토시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운 절로, 조선국왕이 선물한 청동제 삼구족(靑銅製三具足)이나 역대 도쿠가와 장군들의 위패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과 조선의 우호관계를 지탱해온 소 씨 가문의 공적이 당시 양국의 정부로부터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일까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 백 단 정도의 돌계단을 올라가면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오타마야(御靈屋)가 있고 소 씨 일족의 거대한 묘석이 줄 서 있습니다. 조선과의

교역을 독점함으로써 요시토시 이후의 쓰시마번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쓰시마 여행을 통해 운명에 흔들리면서도 쓰시마번을 지키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 회복에 목숨을 건 소 요시토시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은 크나큰 수확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진격의 선전에 서서 평양까지 침공한 요시토시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듯합니다.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교관의 한 사람으로 한일 관계의 틈새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전쟁으로 인해 악화된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려운 외교 교섭을, 때로는 국서를 위조까지 하면서 이루어내려 한 요시토시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시토시는 젊은 시절의 고생이 원인이었던지 1615년 48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8월 7일, 조선통신사 행렬이 쓰시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참가자 약 50명을 포함한 약 300명의 사람들이 화려한 색채의 의상을 입고 소 씨 가문이 거쳐왔던 가네이시(金石)성의 큰 문을 출발해 북 등을 치면서 1시간가량 이즈하라의 거리를 행진합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에도시대에 요시토시가 부활시킨 조선통신사가 21세기인 지금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무 그늘에서 요시토시가 어떤 기분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았을까를 상상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있는 "문화교류의 기록"의 모습들



구지현 + 선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具智賢 + 鮮文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ユネスコ記録(記憶)遺産登録申請資料一覧にある「文化交流の記録」

この度、韓日共同で推進された朝鮮通信使のユネスコ世界記録(記憶)遺産への登録申請は、その結果がどうなるかはさておき、本来の通信使の使行が持つ歴史的な意義を上手く蘇らせたと言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通信使行そのものが朝鮮から日本に派遣された使節であり、これによって生み出されたあらゆる記録物はそれぞれの国が単独で作ったものではなく協力と交流による産物であるからだ。

登録申請された史料は111件333点にのぼり、大きく外交記録、旅程記録、文化交流記録に分けられる。注目すべきことは、使行が政治外交的な行為であるにも関わらず文化交流記録というカテゴリーが存在するという点だ。その量が全体の3分の1以上と少なくない。文化交流の性格を強く帯びていた通信使行の特性が数値にもはっきりと表れている。

通信使に関する記録が世界平和の記録として認められ、世界のどこからでも簡単にアクセスし平和の意味を振り返ることができる日が来ることを期待し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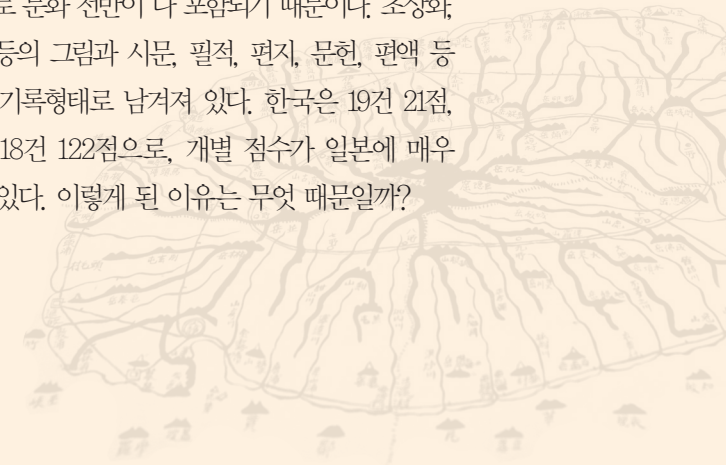
1. 문화교류의 기록 형성의 배경

이번에 한일 공동으로 추진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등재여부를 떠나 본래 통신사 행이 지녔던 역사적 의미를 잘 되살려낸 일이 아닐까 한다. 통신사행 자체가 조선에서 일본으로 떠났던 사절이었고 이를 계기로 이루어진 모든 기록물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공동 협력과 교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신청목록에 오른 등재 건수는 111건 333점에 이르고 크게 외교기록, 여정의 기록, 문화 교류의 기록으로 나뉜다. 눈에 띄는 점은 사행이 정치외교적 행위

인데도 문화교류의 기록이 하나의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으로도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적지 않다. 문화교류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통신사 사행의 특성이 수치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문화교류의 기록은 형태 역시 다양하다. 문화교류란 말 그대로 문화 전반이 다 포함되기 때문이다. 초상화, 산수화 등의 그림과 시문, 필적, 편지, 문헌, 편액 등 다양한 기록형태로 남겨져 있다. 한국은 19건 21점, 일본은 18건 122점으로, 개별 점수가 일본에 매우 치우쳐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임진왜란으로 끊어졌던 조선과 일본의 외교는 1607년 조선에서 에도막부로 회답겸쇄환사를 파견하면서 공식적으로 부활되었다. 초기 포로쇄환이라는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나 1636년 통신사 명칭이 사용되면서부터는 본격적인 문화교류의 장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행의 목적은 국서의 교환이었고 국서의 교환은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더이상 임진왜란과 같은 전쟁이 없으리라는 다짐이 기도 했다.

타결해야 할 세부적인 정치 사안이 없는 대신 대대적인 문화교류가 펼쳐졌는데, 사행원에는 이를 담당하는 다양한 원역(員役)이 포함되어 있었다. 서예를 담당하는 사자관, 문장을 담당하는 제술관과 서기, 그림을 담당하는 화원, 의술에 대한 문답을 담당하는 양의, 마상재를 시연할 군관과 활쏘기를 보여줄 무관, 행렬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악공들이 사행에 참여하였다. 통신사행은 쓰시마를 거쳐 이키, 아이노시마,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였고 세토나िका이(瀬戸内海)를 경유하여 오사카에 상륙하였다. 다시 교토에서 도카이도(東海道)를 따라 에도로 입성하였다. 연로에서 숙식을 제공받아 머무는 동안 일본인들과의 사적인 교류도 생겨나게 되었다. 문화교류의 현상이었던 일본에 문화교류의 기록이 남겨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점수가 일본 측이 많은 것이 당연하리라.

2. 연로에 걸쳐 남겨져 있는 일본의 기록들

문화교류가 통신사행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본의 기록들도 연로에 산재되어 있다. 이번 유네스코 등재신청을 통해 산재해 있는 기록물을 정리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점수가 가장 많은 것은 36점에 이르는 아메노모리 호슈 관련 자료이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는 본래 오미[近江] 출신으로 교토에서

공부하다가 22세 때 스승의 추천을 받아 쓰시마에서 일하게 되었다. 조선과의 외교업무를 담당했던 그는 1711년과 1719년 에도까지 통신사행을 호행하기도 하였다. 이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시문창화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1728년에는 참된 교류가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물인 『교린제성(交隣提醒)』을 저술하였는데 조선과의 성신(誠信)한 외교를 할 것을 설파하였다. 『교린제성』을 비롯한 통신사 관련 기록물이 여기에 속해 있다. 일본의 기록물은 시모노세키의 아카마진구, 우시마도의 혼렌지, 시즈오카의 세이켄지, 닛코 도쇼구 등 통신사행의 대표적인 숙박 혹은 휴게처였던 곳이 소장처인 경우가 많다.

그 가운데 6점을 등재한 후쿠젠지 관계 자료에는 “일동제일형승(日東第一形勝)”이 새겨진 편액과 “대조루(對潮樓)” 현판도 포함되어 있다. 1711년 종사관이었던 이방언이 후쿠젠지에 머물 때 경치에 감탄하여 일본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의미로 써준 것이다.

1748년 아버지 흥계희를 따라 자제군관으로 왔던 흥경해가 그 의미를 살려 “대조루”라는 이름을 짓고 현판을 써주었다. 후쿠젠지는 통신사에 의해 아름다운 풍경이 발굴되고 그에 걸맞은 이름도 지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닛코 도쇼구에 소장된 효종의 어필도 기록물에 포함되어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죽은 후 닛코에 대대적인 신궁이 건설되었다. 1642년 도쇼구가 준공되자 쓰시마를 통해 조선에 편액과 시문, 중, 서명(序銘)을 요청하였다. 인조는 할아버지를 위하는 쇼군 아에미쓰의 효성을 가상히 여겨, 닛코를 효를 중시하는 도량으로 삼으라는 의미의 “일광정계장효도량(日光淨界彰孝道場)” 여덟 글자를 보내주었다. 이 글자를 쓴 사람은 인조의 아들 의창군이었는데, 나중에 왕위에 오른 효종이다.

이렇게 연로에 남은 일본의 문화교류 기록물들은 통신사의 발자취와 두 나라 사람들이 사귀어 이야기들이 깃들여 있다.

3. 우리의 “문화교류의 기록”

개별 점수가 적기는 하지만 한국의 기록물도 하나 하나 풍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조태역상(趙泰億像)』이 대표적이다. 조태억은 1711년 통신사 정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에도에 머물 때 가노 쓰네노부가 쇼군의 명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기 위해 찾아왔다. 조태억은 초상을 받아듣고 쓰네노부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 보냈다.

초상에 장강 같은 화가를 어찌 쓰랴.
날 때부터 못난 모습 알고 있었네.
환영도 한 폭 빌려주오,
나뭇잎 배 타고 쉽게 고향에 갈 수 있게.
傳神何用倩長康, 自識生來貌不揚。
願借襄瀛畫一幅, 葉舟容易到吾鄉。

옛날 중국 강남에 살던 진계경은 장안에 와서 진사시에 낙방한 채 10년 동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청룡사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마침 절 벽에 환영도, 즉 지도가 그려져 있어서 자기 고향 가는 길을 찾으며 탄식하였다.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대나무 잎을 환영도에 올려놓자 지도에서 물결이 일어나고 대나무 잎이 점점 커져 그 대나무 잎 배를 타고 열흘 만에 집에 돌아갔다 왔다고 한다. 당시 막부 전용 화가였던 쓰네노부의 그림이 얼마나 실감났는지 조태억은 못생긴 얼굴 대신 조선까지 쉽게 갈 수 있게 환영도를 그려달라고 시로 말한 것이다. 등재목록에 포함된 『조태역상』은 이때 그려진 그림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동사창수집(東槎唱酬集)』은 2축으로 이루어진 두루마리이다. 1763년 정사 서기로 갔던 성대중이 일본 사람들에게 받은 시문으로, 원래는 개별적인 낱장인데 이를 붙여 두루마리 형태로 만든 것이다. 실제 일본인에게 받은 원본이다. 일본에 조선인의 원본 시문이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나라에 일본인의 육필 시문이 이렇게 다양으로 묶인 것은 유일하다. 자료적 가치도 상당하여 더 연구되어야 할 기록물

이다. 이와 같이 양국인 사이에 주고받은 필적과 그림 가운데 우리나라에 유전된 것들이 우리나라의 목록에 망라되어 있다.

4. 기록유산을 디지털 문화유산으로

통신사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평화의 사절이었다는 점이다. 적어도 통신사행이 지속되는 동안 평화도 지속되었다. 문화교류의 기록은 평화가 지속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민간 교류의 유산이다. 그러나 기록의 특성상 한국과 일본 양국 각지에 흩어져 있다. 이번 등재신청을 계기로 이처럼 많은 자료들이 파악되어 목록으로 작성되었지만, 실물을 한곳에 모으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상당히 많은 기록물이 국가나 지방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시대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통신사 관련 기록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단순한 기록을 선보이는 디지털라이브러리가 아닌, 평화의 의미를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 마인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에도에서 그려진 『조태역상』은 한국에 있지만, 도모노우라의 풍경을 읊은 조태억의 필적은 일본 후쿠젠사에 남아 있다. 조태억과 아메노모리 호슈가 나는 필담이 실린 『호저풍아집(縞紵風雅集)』은 아메노모리 호슈의 고향 다카스키초 역사민속자료관에 소장되어 있다. 조태억과 아메노모리 호슈가 처음 대면한 현장은 쓰시마의 이즈하라이다. 추상적인 평화가 인물 사이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헌과 관련 기록과 현장이 연관성을 갖고 구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조태억의 시를 읽은 사람이 바로 쓰네노부의 그림을 보며 정말 조태억이 못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고, 쓰네노부의 그림을 보는 사람은 바로 조태억의 시를 찾아 그림 속 표정에서 숨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통신사 기록이 세계 평화의 기록으로 인정 받고 세계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하여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자료에 관하여



마치다 카즈히토 +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장
町田 一仁 + 下関市立歴史博物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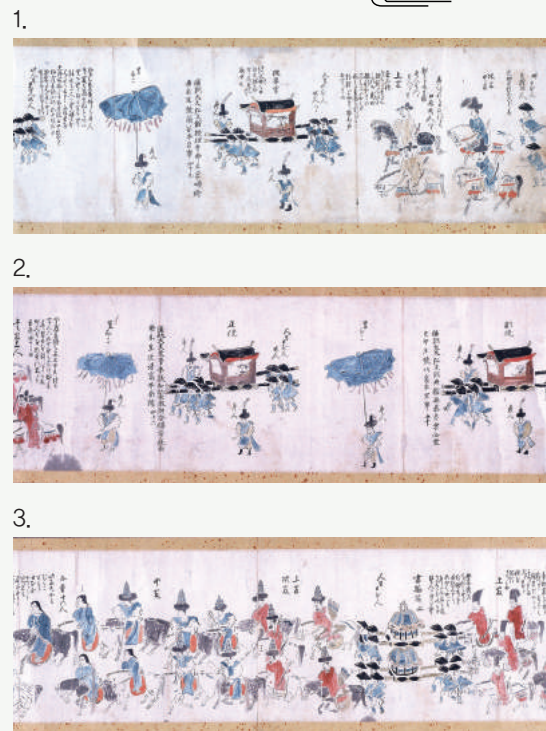
下関市立歴史博物館のユネスコ記憶(記録)遺産登録申請資料について

下関市立歴史博物館は、旧長府博物館の後継館として建設され、本年11月18日に開館する。旧長府博物館は1989年と2008年の二度、大規模な朝鮮通信使展を開催するなど、朝鮮通信使研究の拠点であった。新博物館もこの活動を深化させる予定である。当館は、ユネスコ記憶(記録)遺産に登録申請している「朝鮮通信使の記録」111件333点のうち、4件9点を所蔵している。そのため、ここで紹介し、この資料の存在と価値の周知を図るものである。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은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를 22점 소장하고 있다. 소장 자료는 시모노세키를 영유하고 있던 초후번[長府藩]의 응접기록과 문서, 조선통신사의 유묵, 행렬도, 통신사를 소개한 서민 대상의 판본 등으로, 그 중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록'으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 신청을 한 자료는 다음 4건 9점이다. 더불어 1은 '여정의 기록', 2~3은 '문화교류의 기록'으로 신청서에 분류되어 있다.

1. 엔쿄[延享] 5년(1748년) 조선통신사 등성 행렬도 1권 (年朝鮮通信使登城行列圖 1卷) (34.8cm×552.5cm)

이 행렬도는 1747~48년의 조선통신사가 도쿠가와 쇼군[徳川將軍]에게 조선 국서를 전달하기 위해 에도성으로 등성하는 모습을 그린 두루마리 그림이다. 조선통신사가 에도성으로 등성하는 것은 통신사 방문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날 에도에서는 막부의 명에 따라 수십 만 명의 에도 주민들이 조선통신사 행렬을 구경했다.



● 1,2,3. 엔쿄 5년(1748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

이 그림의 작자는 행렬을 실제로 구경한 무리 중 한 사람이다. 그림 속에 인물평, 쇼군에게 전달하는 선물, 도구 등에 관한 주석과 함께 행렬에 대한 감상과 에도 주민 사이에 퍼진 소문들, 막부의 접대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여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우선 조선통신사의 높은 학식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1 종사관(從事官)은 학문적 재능이 상당한 사람이다. 시문이 특별히 뛰어나다는 소문이다. 또 글도 잘 쓴다.
- 2 상관(上官) 중 학사는 수재(秀才)이다. 글도 아주 잘 쓴다. 학사가 쓴 것을 본 일본인들은 모두들 이 세상 것이 아닌 것 같다. 조선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며 놀란다.
- 3 에도(江戸)에 온 조선인은 하관들까지 글을 잘 쓴다. 화가도 한 명 있다. 매우 훌륭한 그림을 그린다. 조선에서 출발하기 전에 막부로부터 그림을 30장 지참하도록 부탁 받았는데 60장이나 그려 왔다. 어느 것이나 너무나 훌륭하여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 기호품이나 식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1 상관은 다들 담배를 좋아한다. 조선에는 일본처럼 좋은 담배가 없으니 일본 각지에서 제공되는 담배를 조선에 선물로 가지고 간다고 들었다.
- 2 소동(小童)도 담배를 좋아한다. 일본이 신기하여 계속 있고 싶다고 한다. 또 일본의 다양한 장소를 구경하고 싶어한다.
- 3 악사(樂人)는 대식가에 대주자들이다. 일본술이 매우 맛있으며 조선에는 이렇게 맛있는 술이 없다고 한다.
- 4 조선 사람은 살구나 사과 같은 과일을 좋아한다. 또 오이도 좋아하여 막부에서 에도 전체의 오이를 사들여서 제공하고 있다. 하관(下官)은 이 오이를 통째로 씹어 먹는다. 이로 인해 에도에는 오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외 수행 하관에 대한 악평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1 에도의 숙소인 사찰 혼간지[本願寺]에 머무는 동안 하관들이 사찰의 창호 등을 장식한 철물 등을 떼어가는 등 절도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 2 하관들은 일본측에서 식량으로 제공하는 쌀을 먹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판매한다는 소문이 있다. 또 일본 화폐를 편리하게 생각한다.

이 그림의 작자는 전문 화가가 아닌 만큼 그림은 차출하나 조선통신사에 대한 감상이나 평판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기록유산 신청 자료에는 전문 화가가 그린 정밀한 기록화나 예술성이 뛰어난 감상화는 많다. 그러나 이 그림처럼 서민의 눈을 통해 조선통신사의 모습을 그림과 문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은 적고 당시 일본인의 통신사에 대한 대응, 이문화에 대한 동경 등을 알 수 있다.

2. 호레키[宝暦] 14년(1764년) 조선통신사 정사 조엄 서첩 1첩(朝鮮通信使正使趙巖書帖 1帖) (29.0cm×2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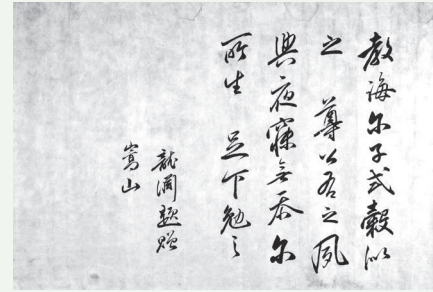
이 자료는 1763~1764년의 조선통신사 정사인 조엄(趙巖)이 돌아가는 길의 쓰시마[対馬]에서 은거하던 전 쓰시마 번주(藩主) 소요시시게(宗義藩)에게 보낸 것이다. 금니(金泥)와 금사(金糸)로 장식된 화려한 절첩에 중국의 고시를 다양한 서체로 휘호했다. 에도까지 방문한 마지막 조선통신사 정사로, 고구마를 조선에 전한 인물로 유명한 조엄의 유묵인 동시에 통신사와 쓰시마번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다.

3. 김명국 필습득도 1폭(金明國筆拾得圖 1幅)

(64.5cm×52.8cm)



이 그림은 1636년과 1643년 2번에 걸쳐 조선통신사로 수행한 화가 김명국이 일본에 있을 때에 그린 것이다. 여기에 무토 [無等]라는 일본 승려가 훗날 작품에 대한 찬미를 추가했다. 김명국은 호방한 성격으로 술을 좋아하고 취할수록 붓을 잘 써 빠른 속도로 명화를 제작했다고 한다. 이 작품에는 '취옹(醉翁)'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했다. 후기 조선을 대표하는 화가이다. 1643년에 일본에 왔을 때인 것으로 보인다. 조선통신사 회원의 방일 중 작품이며 조선통신사 방일에서 생겨난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 성대중필어서(成大中華語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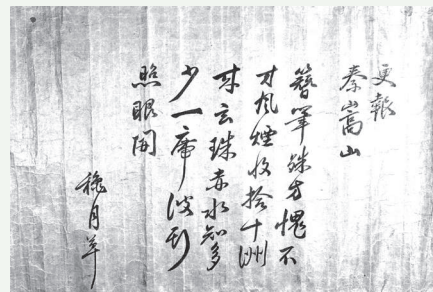
이 자료는 1763~1764년의 조선통신사 제술관인 남옥, 정사 서기인 성대중, 부사서기인 원중거가 시모노세키에서 초췌번 [長州藩]의 학자인 하타 스잔과 학술 문답을 주고 받은 때의 것이다. 그들이 스잔의 시에 화답한 시문, 필담으로 의사소통을 한 필어이다. 종이는 조선의 청태지(靑苔紙)와 설백지(雪白紙) 등이 쓰였다. 내용은 소라이학(徂徠學)에 힘쓰던 스잔의 학문적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그의 온후하고 성실한 인품을 칭송하는 것이다. 이 때의 조선통신사와 일본 학자의 학술교류 양상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다. 스잔의 자손인 하타가 소유로, 자료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위해 당 박물관에 기탁했다.



●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下関市立歴史博物館)

4. 하타 스잔[波田嵩山] 조선통신사 창수시명필어

6장(朝鮮通信使唱酬詩並筆語 6枚) (38.5cm×54.2cm 외)



● 남옥 시서(南玉詩書)

시모노세키 시립역사박물관은 구 시모노세키시립초후박물관의 소장품을 넘겨받아 올해 11월 18일에 개관한다. 상설전시에서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 자료를 포함, 조선통신사 자료를 전시할 예정이다. 조선통신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 인식을 공유하고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시즈오카시와 조선통신사

静岡市と朝鮮通信使



이케다 히로시 + 공익재단법인 시즈오카시 문화진흥재단
池田 博史 + 公益財団法人 静岡市文化振興財団

静岡市の文化交流派遣事業として釜山文化財団に1か月半滞在し、釜山文化財団が日本で行う朝鮮通信使事業を始め、釜山市で行われる様々なイベントを視察した。徳川家康が晩年を過ごした静岡市と朝鮮通信使のつながりや、静岡市の文化事業を紹介し、2020年の東京オリンピックにむけた文化プログラムへの朝鮮通信使事業の可能性について考えていきたい。



저는 2016년 7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47일간 시즈오카시 문화교류파견사업으로 부산문화재단에 있었습니다. 조선통신사를 계기로 교류하게 된 부산문화재단과 부산시의 선진 문화정책과 운영방식을 배우고 신규 문화교류 분야를 찾아 내고자 부산문화재단이 일본에서 실시하는 조선통신사사업을 비롯하여 부산사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를 견학했습니다. 또한 부산문화재단이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문화단체와 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걸은 거리가 255km, 42,000보에 달합니다. 짝은 사진만 해도 2,000장. 도움을 주신 분이 79분. 한국어도 못하는 상태로 들어온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지원해주신 부산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분에 넘치는 기고 기회를 주신 만큼, 제 고장인 시즈오카시와 시즈오카시문화진흥재단을 소개하고 향후 교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즈오카시와 시즈오카시 문화진흥재단



● 다이도게[大道芸] 월드컵 in 시즈오카
사진제공: 시즈오카시

시즈오카시는 일본의 중앙 근처 태평양 측에 위치하여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3,000미터급 산들과 남쪽으로는 일본 최고 수심을 가진 깊이 2,500미터의 스루가만에 이르는 풍부한 자연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예로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이 살았던 조카마치[城下町: 성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로 독자적인 문화와 산업이 성장하여 일본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로 발전해 왔습니다. 녹차와 감귤 등의 농산물과 대하 같은 어패류 등 먹을 거리도 풍부한 고장입니다.

더불어 문화적인 부문에서도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여 150만 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는 11월의 “다이도게 월드컵 in 시즈오카[大道芸ワールドカップin静岡]” 등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역앞에는 미술관과 음악당, 과학관 등이 모여 있어 거리에서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 시즈오카시 문화진흥재단은 시즈오카시의 산하단체로 ‘시민이 각종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과 시민 저마다의 문화창조 활동을 촉진하여 매력적인 시즈오카 문화의 창조, 계승, 확대에 공헌’하기 위해 1994년에 설립, 제작년에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시즈오카 시내의 미술관과 공공강당시설, 과학관 등 18개 문화시설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조성,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사업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즈오카시와 조선통신사

시즈오카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가 만년을 보낸 곳입니다. 옆에 위치한 현재 아이치현 오카자키시에서 태어난 이에야스는 인질이 되어 8살부터 19살 때까지 시즈오카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전국시대를 끈질기게 버텨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익히고 무사로서의 자질을 연마했으며 크게 번성했던 도시 시즈오카는, 이에야스에게 고향인 오카자키보다 애착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 후 전국시대를 거쳐 에도막부가 열린 1603년으로부터 4년 후인 1607년에 스푸성(시즈오카)으로 옮겨 1615년에 사망할 때까지 시즈오카에서 실권을 장악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스푸성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입성한 1607년에 조선통신사가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스푸(시즈오카)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접견합니다. 또 이 당시에는 이에야스가 직접 조선통신사의 정사들을 접대하고 스루가만에 배 5척을 띄워 후지산의 경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시즈오카시 오키쓰에 위치한 사찰 세이켄지[清見寺]에는 조선통신사가 총 11회나 방문했으며 첫 번째와 세 번째(1624년)에는 사절의 숙소로 쓰였습니다. 당대의 최고 지식인인 조선통신사의 작품은 인기를 누렸으며 세이켄지에는 조선통신사가 남긴 편액을 비롯한 다수의 서화 등이 남아 있어 ‘조선통신사 유적’으로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시즈오카시의 조선통신사 사업



● 천하태평축제(天下泰平祭り) 조선통신사 행렬재현
사진제공: 시즈오카시

20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스푸성 입성 400년 축제 및 조선통신사 400주년 사업이 시즈오카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 세이켄지가 있는 오키쓰에서도 시민들이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기 시작,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후 400년이 되던 2015년에 개최된 ‘천하태평 축제’에서는 부산에서 오신 예술단체와 시즈오카 예술단체의 교류공연과 시민이 참여하여 총 300명이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때 부산 문화재단과 관련기관의 협조로 성대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문화재단과 조선통신사를 핵심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큰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2020년에는 60년 만에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헌장에는 ‘스포츠와 문화 및 교육을 조화시킬 것’,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에 일본 문화청은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막을 내린 2016년 가을부터 2020년에 걸친 4년간 문화력 프로젝트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20만 건의 이벤트를 준비하려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지에서 문화 프로그램이 시작되려는 중입니다.

시즈오카시의 활동 중 하나로 ‘거리극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에 빛나는 시즈오카’를 만들기 위한 “사람이 주인공인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시’에 오면 반드시 뭔가 재미있는 것을 하고 있더라, ‘도시’에 가는 것이 즐겁다. ‘두근두근한 일들이 넘쳐나는 “도시 만들기”에 대한 도전입니다. 퍼포먼스의 일상화를 지향하는 예술·문화사업과 문화·창의산업의 진흥을 통한 지역 내 경제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이 가진 창조성을 지역의 활성화와 연결시키려는 활동입니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요시모토 미쓰히로 이사는 2020년의 문화 프로그램의 포인트는 3가지라고 말합니다.

- 도쿄는 물론 일본 전국의 문화가 전세계에 통하게 만들 것
- 일본의 예술과 문화만 알릴 것이 아니라, 전세계 예술가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새로운 작품을 창조 및 공개하도록 할 것.
- 많은 일본인들이 예술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본인이 일상적으로 문화적 활동을 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 라이프스타일을 외국에서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 것.

조선통신사 사업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는 위 3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본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전세계(한국) 아티스트가 참여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한 문화행사로 전세계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올림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전세계 사람들에게 조선통신사 사업이 계기로 작용하여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새로운 활동이 가능할지, 앞으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에 있는 동안 부산문화재단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재)부산 일본영사관의 소개 등을 통해 일본어를 공부하는 한국인 모임에 참여하며 부산 시민 여러분과 교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젊은이들의 반한 감정, 반일감정 같은 말들이 들려오기도 하지만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현실을 직시하는 과정을 통해 같은 목적과 생각을 가진다면 국가라는 장벽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문화교류, 국제교류는 이제 정보 등의 유통에 그치지 않고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이 연결되어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어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나는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저의 47일도 그런 확장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신교린의 '오래된 미래', 한일 청년 문화교류

誠信交隣の「古きに学ぶ未来」
韓日青年文化交流



이철호 + 부산인적자원개발원장
李澈昊 + 釜山人的資源開發院長



今年の夏、韓日の青年文化交流は韓日次世代学術大会に始まり、アジア太平洋カレッジ、韓日未来フォーラム、韓日未来セミナー、文化遺跡共同踏査、公共外交拡大青年懇談会、誠信学生通信使まで続いた。青年文化交流は、韓日友好関係における内生的な源泉である。「交隣」の基盤となる「誠信」は、相手に対する理解と文化の原型に対する尊重から始まる。韓日の青年文化交流が誠信交隣という「古き未来」への扉を開くことを願う。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청년들은 현해탄을 가로질러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다양한 기회를 가졌다. 누가 문명은 충돌한다고 했나! 낯빛 바다를 가로질러 펼쳐진 한일 미래 세대들의 뜨거운 문화교류는 반도와 열도, 지역과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접변이었다. 조선 시대 통신사의 정신을 되살려 한일 청년들은 성신교린의 '오래된 미래'를 열어나갔다.

첫 무대는 청년 대학원생들이 만들었다. 6월 말 가나가와대학 요코하마 캠퍼스에서 한국과 일본의 젊은 인문 사회계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의 연구테마를 소개하고 지식을 교류했다. 동서대가 이끌어온 13회 '한일차세대 학술대회'이다. 발표논문만 9개 분야 70여 편에 이른다. 개막회의의 주제가 예사롭지 않다. "한일에서 세계로, 그리고 미래로"이다. 지난해 국교정상화 50주년의 학술 테마는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였다. 이제는

안에서 밖으로, 뒤를 보기보다는 앞을 보자는, 방향 전환의 결연함이 느껴진다.

8월은 가히 한일 청년 문화교류의 달이다. 한국의 부산대와 일본의 규슈대, 가고시마대, 세이난가쿠인대 학생 100명이 참가한 '아시아태평양칼리지'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부산대와 규슈대의 공동강의 프로그램 '한일해협권 칼리지'가 확대된 것이란다. 한 주일씩 부산과 규슈를 오가며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특강과 기업인턴십에 더해 10개 조로 나뉘어 진행된 필드 워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줬다. 부산의 동삼동패총전시관, 복천박물관, 조선통신사역사관, 영도대교, 그리고 규슈의 전후귀환자료실, 후쿠오카 시민방재센터, 대마도안테나숍, 기타도호쿠안테나숍 등 역사적 장소 탐방과 함께 동래학춤과 K-POP댄스의 학습, 그리고 일본 다도의 체험도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 '한일미래포럼'을 통해 한일 대학생 40명이 시마네현에 모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쌓아가는 토론회를 열었다. "기성세대가 연출하는 철 지난 레퍼토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이야기"에 주목했다. 이에 더해 나가사키현과 쓰시마시가 주최하고 쓰시마 조선통신사 현장사업회,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는 '한일미래 세미나'도 열렸다. 두 나라 청소년들이 지역을 돌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교류를 심화시킬 방안을 토론했다. 특히 중국 청소년도 함께 불러 '한중일 트라이앵글 교류회'도 시도했다.

조선통신사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은 한일대학생 국제공동연구도 있었다. 영남대와 히로시마경제대 학생들이 함께 진행한 '문화유적 공동답사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대마도에서 전문연구자들의 강의를 들으며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쫓았다. 이 과정에는 나가사키 국제대학 학생들도 참여했다. 이들이 토론을 거쳐 정리한 답사결과는 10월 히로시마현에서 열릴 조선통신사 행사에서 발표된다고 한다.

공공외교 분야의 청년교류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외교에 관심이 많은 한일 청년대표 32명은 10박을 함께 하며 풀뿌리 차원의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체적 방안들을 만들어 여의도 국회에서 발표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일교류 그림책 제작, 한일 청년스타트업 공동체 설립, 한일 공동 사용자 참여 뉴스 제작, 한일 대학가요제, 한일 인터넷 네트워크 플랫폼 제작 등 정책대안들이 다채롭다.

한일 청년 문화교류의 하이라이트는 조선통신사의 정신을 아로새긴 '성신학생통신사(誠信學生通信使)'이다. 고려대와 와세다대가 2009년부터 시작한 대학생 교류협력 사업이다. 올해는 19명의 대학생들이 부산 조선통신사역사관, 경남 함천의 원폭피해자복지회관, 대구 국제보상운동기념관,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 등을 방문했다. 성신학생통신사의 정신적 토대는 2001년 도쿄 신오쿠보 역에서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려다

숨진 '의인(義人) 이수현'이다. 고려대를 다니던 의인이 변을 당한 장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종합대학이 와세다이기도 하다. 한일 청년들은 부산 영락공원에 있는 의인의 묘소를 찾아 '고향의 봄'을 불렀다. 의인의 희생정신은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다.

지난해 요미우리신문과 한국일보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상대국에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국민은 일본이 64%, 한국이 78%였다. 그 이유로 일본국민 76.4%가 '역사문제로 한국인이 일본을 계속 비판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한국국민 76.8%는 '한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과 일본 언론 NPO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64%, 한국인 87%가 양국관계의 호전을 바란다. 또한 아사히신문과 동아일보의 조사에서 일본인 65.3%, 한국인 87.4%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를 요약하면 양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한일관계의 악화가 과거사 문제에 기인한다고 보지만,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일본은 국민의 3분의 2에, 한국은 국민의 거의 90%에 이른다. 관계 개선의 당위성 앞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하나?

지난여름 한결 뜨거웠던 한일 청년 문화교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방향인지 말해준다. 더디고 미미해 보이더라도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와 상호이해야말로 한일 우호관계의 내생적 원천이자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뒷받침한다. 루쉰(魯迅)이 설파한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이 많으면 곧 길이 된다. 교린의 길은 성신에 있다. 서로에 대해 진심을 다해 이해와 믿음을 차곡 차곡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 출발선은 상대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들에 대한 이해와 인정, 서로의 문화적 원형에 대한 존중이다. 우리 한일 청년들의 문화교류 열기로 성신교린의 '오래된 미래'가 활짝 열리길 기원한다.



2016 조선통신사 한일네트워크사업 쓰시마와 시모노세키

2016朝鮮通信使韓日ネットワーク事業
対馬と下関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厳原港祭り)”

8월 6일(토), 7일(일) 양일 간 열린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에는 조선통신사 행렬재현과 한일문화교류공연을 위해 부산문화재단에서 파견한 부산의 백양고등학교 취타대, 배김새 무용단이 함께 하였으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의 정사와 부사역에는 1719년 9회 정사 홍치중 8대손 홍우식씨, 1643년 5회 종사관 신유 10대손 신경식씨가 참여하였다.

무더운 날씨에 진행된 올해 조선통신사 행렬은 카네이시성 성문에서 이즈하라항까지 약 2.5km로 작년보다 구간이 더욱 확대되었고, 한일 양국을 통틀어 약 200여 명이 참여한 행렬재현에는 취타대와 무용단의 춤과 음악, 사물놀이 가락이 어울어져 분위기를 달궜으며, 정사와 부사, 종사관이 탄 가마가 지나갈 때마다 일본 시민과 한국 관광객들이 열렬히 손을 흔들었다.

쓰시마 번주 역을 맡은 히타카즈 나오키 쓰시마 시장을 비롯한 현지 시민들은 무더운 날씨로 인해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웃음을 잃지 않고 행사 자체를 즐겨주었고, 현지 시민들은 한일 양국 문화 교류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행렬이 지나는 도로에 물을 뿌려주어 참가자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배려했다. 조선통신사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자세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馬関祭り)”

자매도시 결연 40주년을 맞아 열린 올해 시모노세키 “바칸 축제”에는 조선통신사 행렬의 정사역으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부산문화재단은 39회를 맞는 바칸 축제에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예술단, 업스케일, 부산태극취타대로 구성된 예술단 약 130여 명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참여한 시민 100여 명과 함께 조선통신사 행렬을 재현하면서 시모노세키 도시를 매료시켰다.

먼 뱃길을 마다 않고 건너온 부산의 예술단과 행렬을 응원하는 시모노세키 시민들에게 찌는 듯한 8월의 무더위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다.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의 남다른 우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행렬 재현뿐만 아니라 평생학습 프라자에서 열린 “부산·시모노세키 어울마당”에서는 한국 측에서 참가한 예술단들과 일본의 예술단들의 문화교류 공연이 열렸으며, 특히 부산예술단의 사자춤 공연은 일본 시민들에게 기립 박수를 받았을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자매결연 40주년을 맞은 부산시와 시모노세키시, 앞으로도 50년, 60년, 성신교린의 정신을 이어가며 두 도시 간의 활발한 문화 교류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11월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파리 홍보 활동 추진

오는 11월 부산문화재단과 일본 NPO법인 조선통신사연지연락협의회는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한일 공동 등재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재 한국 측의 파리한국문화원과 일본 측의 파리일본문화회관의 협조 속에 홍보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국 측에서는 전시 홍보를 중심으로, 일본 측에서는 세미나 및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측은 1711년 등성행렬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지인형 중 '국서가마' 부분, '정사' 부분,

'약사' 부분 등 약 150여 점을 11월 14일부터 30일까지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한다. 일본 측은 조선통신사 소개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과 의의 등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일본문화회관에서 15일에 한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홍보 활동은 프랑스 시민들과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일본인들에게 조선통신사에 대한 의의와 역사를 처음 소개하는 자리로 각 국 언론의 관심속에 조선통신사가 세계기록유산으로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시즈오카 인형 전시



2015. 09. 27. ~ 11. 06.

시즈오카 시미즈 문화회관 마리아트에서 개최되었던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

◆ 국립해양박물관 인형 전시



2016. 04. 19. ~ 05. 08.

국립해양박물관 "조선통신사, 세계인의 품으로" 테마전

◆ 5월 조선통신사 축제 국제학술심포지엄



2016. 05. 06.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조선통신사학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한국 측에서 진행했었던 조선통신사 인형 전시와 세미나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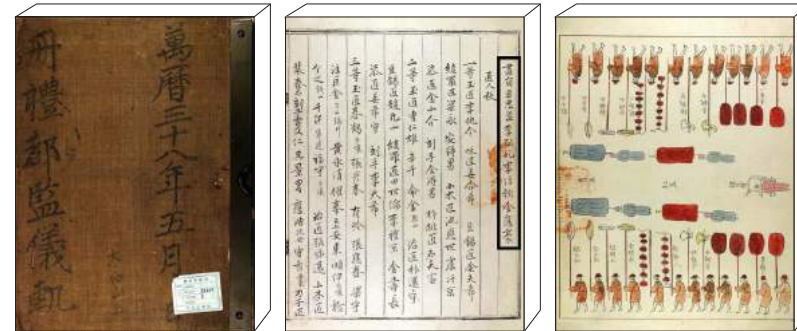
임란 후 처음 일본에 파견된 화가, 이홍규

文祿慶長の役後、初めて日本に派遣された画家
李弘虯(イ・ホンギョ)



이정은 + 범어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李貞愷 + 梵魚寺 聖寶博物館 學芸研究室長

丁未使行(1607年)は、文祿慶長の役後の両国における外交関係の回復に向けて再開された使行という特徴から、様々な意味で緊張感の漂う使行だった。そのためか、当時の随行画員だった李弘虯(イ・ホンギョ)をはじめとする芸術家たちの活躍に関する記録はほぼない。唯一、朝鮮王室儀軌の記録でその名前と作品を見ることができ、慶暹の『海槎録』に記された随行員の名簿からいくつかの事実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인양후인목왕후상조중궁전왕세자책례도감의궤』 필사본 1책407면/199장, 1610년(광해군2년).
저주지/홍포, 31면(채색), 반차도 39면(채색), 44.0×33.3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태백산/유일본) 中 표지, 177면, 379면.

임진년 전쟁 이후 조·일 간 교류를 위해 파견된 조선 통신사의 수행화원은 이홍규였다. 정미사행(1607년)은 전쟁 이후 조선과 일본 양국 사이에 외교적 관계의 회복을 위해 재개된 사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감이 감도는 사행이었다. 그러므로 문화 예술의 교류 보다 일본의 정세와 분위기를 살피기 위한 외교적 전략이 더 중요한 사안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는지 당시 수행

화원을 위시한 예술인들의 활약을 전하는 기록은 거의 없다. 또한 일본에도 이홍규의 유작으로 전하는 그림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사행 시 그의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의궤기록에서 그의 이름과 그림을 볼 수 있고, 경섭(慶暹, 1562~1620)의 『해사록(海槎錄)』에 실린 수행원 명단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양에서 구성된 수행원과

※ 작품이 전하지 않는 이홍규의 그림은 의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방에서 구성된 수행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지방색이 사행에 반영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더불어 정미사행 2년 전 중국으로 연행사를 다녀온 학관 양만세를 비롯하여 1604년 방일하여 포로쇄환에 큰 공로를 세운 역관 김효순, 박대근 등 사행경험과 실전 능력이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었다. 정미사행 수행원은 신중하고 엄격한 발탁 기준에 선발된 인원이었고 이흥규도 정미사행 선발기준에 발탁된 단 한 명의 수행 화원인 것이다.

『선조실록(宣祖實錄)』 1606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신이 대동할 군관(軍官)·역관(譯官)·의원(醫員)·화원·사자관(寫字官)들은 모두 직책을 맡아 의관을 갖추어 입는 사람들로써, 멀리 이역에 가는 일이 가까운

서울에 가는 것과 비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적들이 볼 때에 아주 매물찰 뿐 아니며, 몸에 지니는 행장도 보아 줄 사람이 없게 되면 사세가 극히 군색스러울 것입니다. 더구나 황신(黃愼)의 사행 때에도 이미 데리고 간 적이 있으니, 지금 감손(減損)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宣祖 206卷,
39年(1606 丙午) 12月 22日(丙辰) 번째 기사
“臣所帶軍官, 譯官, 醫員, 畫員, 寫字等官, 皆是有職衣冠之人, 遠赴異域, 實非赴京便近之比 奴子不爲帶去, 則非徒賊人所見, 極爲埋沒, 隨身行李, 看護無人, 事勢極爲窘迫 況 黃愼 之行, 既爲帶去, 則今不可減損”



『광해군준송도감의궤』 필사본 1책 392면/191장, 1621년(광해군13년), 저주지/중이, 15면(채색), 반차도 14면(채색), 45.1×35.4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강화부) 중 표지, 366면, 379면.



『공성왕후부묘도감의궤』 필사본 1책186면/88장, 1615년(광해군7년), 저주지/홍포, 2면(채색), 반차도 6면(채색), 44.5×34.2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한성부/유일본) 중 표지, 142면, 177면.



『소현세자에장도감의궤』 필사본 1책546면/272장, 1645년(인조23년), 저주지/홍포, 32면(채색), 반차도 24면(채색), 35.8×25.1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중 표지, 540면, 335면.



『효종왕세자급빈궁책례도감의궤』 필사본 1책280면/138장, 1645년(인조23년), 저주지/홍포, 16면(채색), 45×34cm, 규장각한국학연구원(태백산) 중 표지, 259면, 187면.

사행을 준비하면서 여우길(呂祐吉)이 주청한 대목이다. 당시 역관·화원·의원·사자관 등 수행원들의 노비를 대동시키지 말라는 하명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에 대해 명령을 철화하고 대동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이다. 그 이유는 관복까지 갖추어 입은 이들의 위신을 세워 일본인들이 낮춰 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맡은 바 직책이 주어졌고, 그에 상응하여 관복을 입고 가도록 했다.

화원으로서 위신을 세워 수행해야 할 직책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하나는 조선의 뛰어난 화풍을 일본에 과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지형과 문물을 살펴 그것을 스케치 하는 것이다. 일본의 정권이 바뀌어 조·일관계가 개선은 되었지만, 아직 일본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것을 관찰하는 것이 이 사행의 중요한 임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수한 조선의 기풍으로 상대국의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정미사행의 전략이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략에 이흥규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행에서 화원의 위신에도 무게를 두고 있는 점으로 보아 결코 적지 않은 일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